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Child-Parent Attachment and Social Competence

이 속 희*

Lee, Sook Hee

김 속 령**

Kim, Sook Ryong

ABSTRACT

Sixty-three children aged 5 and 6 years and their mothers and teach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examining the association between attachment and social competence. The quality of attachment was assessed using Separation Anxiety Test developed by Slough and Greenberg. Mothers and teachers completed questionnaires regarding family background and social competence(Iowa Social Competence Scale:Preschool), Consistent with attachment theory and previous research,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attachment quality and their social competence. Attachment score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Social Competence and Leadership scores and negatively with Apprehension and Hypersensitivity scores. In contrast, Avoidance scores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Social Competence and Leadership scores and positively with Hypersensitivity scores.

I. 서 론

1. 연구의 의의

유능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은 아동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이다(Hartup, 1989; Sullivan, 1953). 또래에 의해 거부당하고 지지 받지 못하

는 아동은 훗날 부적응적이며 탈선하기 쉽고(Parker & Asher, 1987),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인기 있는 아동은 또래와 교사에 의해 협동적이며 지도력이 있고 적응 문제를 덜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Coie, Dodge, & Coppotelli, 1982).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어린시절 부모와의 상호

*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조교수

** 배재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조교수

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아동발달에 있어서 수없이 강조되어 왔다. 또래가 좋아하고 지지하는 아동의 부모는 온정적이고도 일관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McDonald & Parke, 1984), 특히 초기 어린시절 어머니의 아동의 요구에 대한 민감성은 어머니와 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하고 이는 결국 이후의 사회적 능력에서 반영된다(Ainsworth, 1973; Bowlby, 1969).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의 질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Bowlby나 Ainsworth 등의 애착이론은 영아기, 걸음아기, 유아기, 그리고 아동후기 이후의 아동을 대상으로 일관되게 입증되어 왔다. 그러나 많은 연구가 애착행동이 결정적으로 형성되고 표현되는 영아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과거 영아기의 애착상태가 현재 유아기나 아동기의 사회적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연구의 주된 초점이 되어 온 것이다. 유아기 이후의 아동의 애착상태를 규명하고 이를 발달의 다른 제영역과 함께 조명해 본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에 대한 유아의 현재 애착상태가 그들의 사회적 능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봄으로써 사회적 능력에서 반영되는 부모에 대한 현재의 애착의 상태를 규명해 보는데에 그 의의가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능력이 가정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고 이들이 현재 부모에 대하여 형성하고 있는 애착의 질과 이들의 사회적 능력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설정된 연구 문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유아기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능력은 가정환경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유아기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의 질과 사회적 능력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애착이론과 측정도구

애착이론은 Bowlby의 비교행동학적 이론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Bowlby에 의하면 애착은 애착대상(부모)이 배고픔이나 성적(구강적 혹은 신체적 접촉)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생겨난 2차적인 욕구가 아니라, 애착행동 자체로서 본능적인 동기를 갖는 일차적 욕구이다(Bowlby, 1973, 1982). 어린 아동은 생존과 보호를 위해서 의미있는 성인에 대해 접근성(proximity)을 유지하려고 하며 특히 위기 상황 속에서 접근성을 추구하기 위한 애착행동들을 보인다.

아동이 부모에게 형성하는 애착관계의 질은 아동이 어린시절에 경험한 부모와의 상호작용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다시 말하면 생후 초기에 아동이 보여준 애착행동(울기, 미소짓기, 매달리기 등)에 부모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이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아동이 부모와 형성한 애착관계의 질에 의해 아동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구성한다. 즉 아동의 애착신호에 대해 부모가 민감하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경우 아동은 애착을 불안정하게 형성하고 이 경험이 누적되어 가면서 아동은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부모 및 다른 성인에 대해 신뢰감을 갖지 못하게 된다. 반면에 아동의 신호에 민감하고 지지적이며 애착행동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반응해 줄 때 아동

은 자신이 유능하고 사랑 받는 존재라는 느낌과 함께 필요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 즉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게 된다(Bowlby, 1973; Brentherton, 1985).

애착은 어린 아동을 해(harm)로부터 보호해주는 생리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애착행동은 아동이 위기나 긴장을 느끼는 상황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만약 아동이 신체적 정서적 위험을 느끼면 애착대상(부모, 주로 어머니)에게 울음이나 접근추구 등의 행위로써 신호를 보내어 추위나 배고픔, 낯선 사람으로부터의 불안감을 제거시키도록 한다. 한마디로 긴장을 유발하는 환경이나 자극은 아동의 애착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Bowlby의 애착이론을 정교화시킨 Ainsworth와 그의 동료들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낯선 상황”이라는 실험적 절차를 개발하였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낯선 상황”절차는 고의적으로 약 12-18개월의 어린 아동을 엄마와 격리시키거나 낯선 사람을 접하게 함으로써 긴장된 상황을 조성하여 애착행동을 유발한다. 즉 아동은 엄마와 놀다가 낯선 사람의 방문을 받기도 하고 혼자 있기도 하면서 엄마와 격리되는 경험을 하는데 이러한 긴장 상황 뒤 엄마와 재결합했을 때의 아동의 행동반응은 아동의 애착상태를 말해준다. Ainsworth와 그의 동료들(1978)은 재결합시 엄마에 대한 아동의 애착행동을 관찰·분석한 결과 3가지의 애착유형을 발견하였다. 첫째, 안정된 애착(유형 B)을 나타내는 아동은 엄마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해 하며 엄마가 떠날 때 동요를 일으키지만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을 보여 준다. 또한 엄마가 돌아 왔을 때 안기는 것을 좋아하고 엄마와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하는 한편 품에서 내려졌을 때 자유롭게 놀이 활동으로 돌아간다. 둘째, 불안-회피적

애착(유형 A)을 보여 주는 아동은 엄마와의 격리 상황에 대해 동요되지 않으며 엄마와의 근접성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엄마와 재결합하는 상황에서 엄마를 회피하거나 못 본 척하는 행동을 취한다. 끝으로 불안-저항적 애착(유형 C)의 아동들은 엄마에 대해 양면적인 행동을 갖는다. 이들은 엄마와 근접성을 유지하고 꼭 붙어 있으려 하는가 하면 동시에 엄마가 안아 주고자 할 때 엄마를 멀리 하고 밀거나 발로 차는 등 상반적인 행동을 보인다.

Main, Kaplan과 Cassidy(1985)의 연구에서는 6세아를 대상으로 “낯선 상황”절차를 수정하여 아동이 부모와 1시간 격리 후 재결합 할 때 보여준 행동을 분석하여 애착의 안정성 점수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아동의 애착·안정성 점수는 정서적 개방성이나 실험절차 진행 과정에서 아동이 보여준 일반적인 능력과 의미 있는 관계가 있었다. Cohn(1990)의 연구에서도 1시간 격리 후 엄마와 재결합 할 때 측정된 6세아의 애착반응이 이들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6세아를 대상으로 수정된 “낯선 상황” 절차를 사용하여 측정된 애착 상태는 아동의 사회·정서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 연구들은 영아기 이후에 측정된 애착 상태가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말해 준다.

만 2세 미만의 영아는 언어적 표현이 어렵고 따라서 그들의 부모에 대한 애착 상태는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을 관찰함으로써만 측정 가능한 것임에 반해 5, 6세경의 아동은 자기 표현력이 있고 부모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언어로써 구사할 수 있다. Klagsbrun과 Bowlby(1976)는 4-7세 아동의 애착 측정을 위해 Hansburg(1972)의 청소년용 격리불안 테스트를 수정한 바 있다. 어린 아동용으로 수정된 격리불안 테스트(Separation

Anxiety Test)는 또래 아동(4-7세)이 부모와 격리되는 상황을 묘사하는 6장의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테스트는 각 사진을 제시하며 사진의 주인공의 느낌, 그렇게 느끼는 이유, 사진의 주인공이 앞으로 할 활동에 대해 유아의 언어적 반응을 이끌어 내는 투사적 면접형태로 유아의 현재 애착 상태를 측정한다. 이 방법은 최근에 Slough와 Greenberg(1990)에 의해 현 시대에 맞게 재수정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Slough와 Greenberg의 격리불안 테스트를 사용하였다.

2. 애착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으로서 아동의 성, 연령, 형제관계, 사회경제적 배경, 문제해결 및 정보처리 기술 등 여러 변인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특히 많은 연구들이 부모의 양육행동 및 태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더욱이 Bowlby의 애착이론(Ainsworth, 1973; Bowlby, 1969)이 실험적으로 많은 연구에서 입증됨에 따라 초기 어린시절 아동과 부모와의 상호관계의 질이 중요한 변인으로 강조되기 시작했다. 부모와 아동 간의 관계의 질적 특성은 아동이 또래와 관계를 맺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또래와의 관계는 결국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다.

아동이 부모에게 형성하는 애착관계는 아동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타인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 예측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즉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의 부모는 아동의 요구에 반응적이고 민감하며 이러한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정신적 표상에 의해 아동은 또래나 다른 타인에 대해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며 자신의 행동을 취하게 된다.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아동의 사회적

행동은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게 한다.

이와 반대로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고 부모에 대해 거부적이거나 비수용적인 정신적 표상을 갖게 된 아동은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모에 대해 불안-회피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동의 경우 사회적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거부당하리라는 예측과 함께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행동 유형을 취한다. 한편 불안-저항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그들의 비일관적인 부모에 대한 정신적 표상으로 인해 타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 여겨 또래와의 관계에서 망설이고 소극적인 동시에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을 나타낸다(Rubin & Lollis, 1988; Sroufe, 1983).

Ainsworth와 그의 동료들(1978)의 낯선 상황 실험절차를 사용한 연구들은 영아기의 애착의 질이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 왔다.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경우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경우보다 걸음마기에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했으며(Pastor, 1981) 유아기에 친밀하지 않은 또래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Jacobson & Wille, 1986), 유능하고(Waters, Wippman, & Sroufe, 1979), 친구들이 좋아하며(LaFreniere & Sroufe, 1985), 문제행동을 덜 일으킨다(Erikson, Sroufe, & Egeland, 1985)고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영아기의 애착이 향후 걸음마기나 유아기의 사회적 행동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밝혀 준다. 그러나 아동기 현재의 애착 상태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거의 없다. 최근에 6세경의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의 현재의 애착 상태와 사회적·정서적 발달과의 관계를 밝힌 몇몇 연구가 보고되었는데 이 연구들에서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부모에 대한 애착의

질을 반영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예를 들면 Main, Kaplan과 Cassidy(1985)의 연구에서 안정된 애착을 보여준 아동은 그렇지 못한 아동보다 실험자와의 상호작용에서 과업수행 및 일반적인 사회적·정서적 기능을 우월하게 발휘했고 부모와의 격리 상황에 대한 대화를 할 때에도 언어적 반응을 잘하는 정서적 개방성을 나타냈다. 마찬가지로 Cohn(1990)의 연구에서도 6세 때 안정된 애착을 보여준 아동은, 남아의 경우,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또래와 교사가 더 좋아하고 덜 공격적이며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문제행동을 덜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의 현재 애착과 사회적 발달에 관한 국내 연구로서는 김숙령(1995)과 노명희(1995)의 연구가 있다. 김숙령(1995)의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6세아를 대상으로 애착과 사회정서적 문제 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한국과 미국 유아 모두 부모에 대해 애착을 안정되게 할수록 문제행동을 덜 보였으며 덜 적대적이며 덜 공격적이고 불안하고 두려워 하는 경향도 낮았다. 한편 노명희(1995)는 국민학교 1, 2, 3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의 애착 유형이 대인적응성, 사회참여도, 사교성, 인기도 및 지도력을 포함하는 사회적 능력과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와 대전시의 유아교육 기관에 다니고 있는 만 5세부터 6세까지의(평균연령 5년 8개월)의 아동과 이들의 어머니와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아동은 총 63명으로 이중 남아는 31명, 여아는 32명이었다. 출생순위를 보면 첫째아가 37명으로 전체 아동의 58.7%를 차지

하였으며 이중 14명이 외동이었다. 둘째아는 21명(33.3%), 셋째와 넷째아는 각각 3명(4.8%)과 2명(3.2%)이었다. 부모의 학력을 보면 아버지의 경우 고졸 이하인 경우는 5명(7.9%)으로 가장 적었고 대부분(27명, 58.7%)이 대졸 출신이었으며 대학원 졸업 이상자도 20명(31.7%)이었다. 어머니의 경우 고졸 이하는 16명(25.4%), 대졸 45명(71.4%), 대학원 졸업자가 2명(3.2%)이었다. 부모의 직업은 아버지의 경우 사무직이 32명(50.8%), 관리직과 전문직이 16명(25.4%), 기능직과 자영업자 13명(20.6%) 등으로 나타났다. 대상아동의 어머니 중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29명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하였다. 이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어머니가 16명(25.4%)으로 가장 많았고 단순노무직이나 기능직에 종사하는 자가 4명(6.4%), 자영업자 6명(9.5%), 관리직과 전문직 종사자가 3명(4.8%)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월평균 수입을 살펴보면 150만원 미만인 가정이 5(7.9%), 15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인 가정이 25(39.7%), 25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인 가정이 17(27.0%), 350만원 이상인 가정이 16(25.4%)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및 조사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로는 아동의 애착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격리불안 테스트(Separation Anxiety Test)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교사용 질문지가 있었다. 격리불안 테스트는 처음에 11-17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Hansburg(1972)에 의해 개발되었으나 Klagsbrun과 Bowlby(1976)가 4-7세의 아동용으로 수정한 바 있다. 이를 최근에 Slough와 Greenberg(1990)가 보완하여 다시 현대적 감각

에 맞게 체계적으로 재수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Slough와 Greenberg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격리불안 테스트는 아동이 부모와 격리되는 장면을 묘사하는 6장의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3장의 사진은 비교적 가벼운 격리상황(예, 엄마가 밤에 잘 자라고 인사한 뒤 방을 나가심)을 묘사하며 3장은 심각한 격리상황(예, 엄마와 아빠가 아이를 두고 주말 여행을 떠나심)을 묘사한다. 격리불안 테스트는 이 6장의 사진을 아동에게 제시하면서 격리상황에 대해 아동이 갖고 있는 생각과 반응들을 유도해 내는 면접법에 의해 부모에 대한 아동의 정신적 표상을 파악한다. 격리불안 테스트에 있어서 Slough와 Greenberg(1990)는 불안정하게 형성된 아동일수록, 부모와의 격리상황에 대해 얘기할 때 자기의 경우와 다른 아동의 경우를 다르게 구별하여 반응할 것이라는 주장을 한 바가 있다. 왜냐하면 안정되게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애착과 관계된 감정들을 표현할 때 그 대상이 아동 자신이든 다른 아동이든 상관 없이 느낌들을 나타낼 수 있으나 애착이 손상된 아동들의 경우 부모와의 격리상황이나 애착과 관계된 것을 얘기할 때 의식 속에서 자기 자신을 연관지어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Slough와 Greenberg는 격리불안 테스트를 실시할 때, 격리상황에 있는 사진 속의 아동에 대해서 면접함과 동시에(예, 이 사진의 소년(소녀)은 어떻게 느낄까?) 그 상황이 “만일 면접하는 아동 자신이라면” 어떻게 될지를 질문하여 의미있는 결과를 얻어냈다. 즉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자신”의 경우로 가정하여 물어보았을 때 더욱 효과있는 연구결과를 얻은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면접과정에서 사진 속의 아동에 대한 반응과 면접 대상자인 아동 자신에 대한 반응을 둘 다 얻어 내었다.

격리불안 테스트에서 나타난 아동의 반응은 애착의 질과 관련된 3가지의 하위요인별로 점수화되었다. 즉 애착 안정성, 자기 신뢰성, 회피성의 3가지 요인별로 점수가 환산되었는데 애착안정성은 부모와의 격리에 대한 아동의 부정적인 느낌을 반영한다. 특히 혼자 있는 것이 위험하거나 격리 기간이 너무 길 때 이별에 대한 슬픔이나 분노를 표현하고 부모대신 함께 있어줄 사람을 요구할 수 있다. 또는 격리를 수용하면서도 부모님을 생각하게 하는 활동(예, 전화할 거예요. 엄마 아빠 방에서 자요. 엄마 사진을 찾아봐요...)을 언급할 수도 있다. 자기신뢰성은 심각한 이별(예, 부모님이 보름동안 여행을 떠나심)이 아닐 경우에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격리상황을 대처하고 부모대신 함께 있는 사람(이모나 삼촌)에 초점을 두는 등 혼자 있는 것에 대해 두려워 하지 않는 특성을 말한다. 회피성은 면접시 아동이 격리상황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거나 관련 없는 엉뚱한 말을 하고 격리에 대해 무감각한 척 위장된 반응을 보이는 특성을 갖는다. 3가지 하위요인 중 애착안정성과 자기 신뢰성은 긍정적인 애착의 질로, 회피성은 부정적인 애착의 질로 평가된다. 각 애착요인은 사진 속의 아동에 대한 반응의 경우엔 “-타인”, 아동 자신의 경우로 가정하여 반응한 경우엔 “-자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구별되었다. 격리불안 테스트에 있어서 검사자들 간의 채점일치도는 애착 안정성의 경우 “-타인”과 “-자신”이 각각 89%와 88%, 자기 신뢰성의 경우 94%와 100%, 회피성의 경우 85%와 88%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알아내기 위하여 Pease, Clark과 Crase(1979)의 ISCS-P(Iowa Social Competence Scale:Preschool)를 번역·수정한 송나리 등(1993)의 것을 사용하였다. 수정된 ISCS-P는 총 23문항으로 유능성(Capabili-

ty), 지도력(Leadership), 불안정성(Apprehension), 과민성(Hypersensitivity)의 4가지 하위요인을 갖는다. 하위요인에 대한 각 문항들은 문항이 적용되는 정도에 따라 “매우 그렇다.”의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 아동과 아동의 가정적 배경을 알기 위하여 어머니용으로 본 연구자가 제작한 질문지를 어머니에게 배부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는 SPSS-PC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는데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알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을 구하고 연구문제에 따라 t-test, Oneway ANOVA, Pearson's r을 구하였다.

IV. 연구결과

1. 가정환경변인에 따른 아동의 애착과 사회적 능력

아동의 애착과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정적 변인으로서 본 연구에서 조사된 변인으로는 아동의 성별 및 출생순위, 어머니의 취업여부, 부모의 학력과 직업, 가계 월소득 등이었다. 이러한 변인들이 아동의 애착과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한 결과는 <표 1>부터 <표 4>까지에 나타나 있다.

1) 가정환경변인에 따른 아동의 애착

아동의 애착의 질을 나타내는 하위 구성요소에는 애착-타인(부모와의 격리상황을 얘기할 때 사진 속의 아동에 대한 투사적인 반응을 유도한 경우), 애착-자신(연구대상 아동 자신의 경우를 직접 가정하여 반응을 유도한 경우), 자기신뢰-타인, 자기신뢰-자신, 회피성-타인, 회피성-자신이 있다. 이들 애착구성요소에 대한 아동의 성별과 어머니의 취업유무의 영향력을 조사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아동의 성별과 어머니의 취업유무는 5, 6세 아동의 애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표 1> 참조).

<표 1> 아동의 성별과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아동의 애착점수(N=63)

독립변인	아동의 성별	평균	표준편차	t	어머니의 취업유무	평균	표준편차	t
애착-타인	남	9.52	1.65	-.32	유	9.52	1.57	-.29
	여	9.66	1.84		무	9.65	1.89	
애착-자신	남	8.42	1.91	-1.72	유	8.97	1.89	.39
	여	9.28	2.06		무	8.76	2.16	
자기신뢰-타인	남	8.61	1.76	-1.00	유	8.79	1.84	1.76
	여	8.19	1.60		무	8.06	1.48	
자기신뢰-자신	남	8.42	1.79	-.53	유	8.72	1.94	.77
	여	8.66	1.75		무	8.38	1.60	
회피성-타인	남	7.42	1.57	-.48	유	7.10	1.29	-1.84
	여	7.63	1.85		무	7.88	1.94	
회피성-자신	남	7.65	2.18	.29	유	7.24	1.70	-1.22
	여	7.50	1.83		무	7.85	2.20	

〈표 2〉 출생순위, 부모학력, 부모직업, 월수입에 따른 아동의 애착점수

독립변인	출생순위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				
	변량원	DF	SS	MS	F	변량원	DF	SS	MS	F	변량원	DF	SS	MS	F
애착-타인	집단간	3	5.90	1.97	.64	집단간	2	6.84	3.42	1.22	집단간	3	3.63	1.21	.39
	집단내	59	181.37	3.07		집단내	59	180.07	3.05		집단내	59	183.64	3.11	
	합계	62	187.27			합계	61	186.92			합계	62	187.27		
애착-자신	집단간	3	3.96	1.32	.31	집단간	2	9.81	4.90	1.21	집단간	3	3.17	1.06	.25
	집단내	59	249.76	4.23		집단내	59	239.24	4.05		집단내	59	250.54	4.25	
	합계	62	253.71			합계	61	249.05			합계	62	253.71		
자기신뢰-타인	집단간	3	5.85	1.95	.68	집단간	2	1.73	.87	.29	집단간	3	12.37	4.12	1.49
	집단내	59	169.23	2.87		집단내	59	173.19	2.94		집단내	59	162.71	2.76	
	합계	62	175.08			합계	61	174.92			합계	62	175.08		
자기신뢰-자신	집단간	3	21.42	7.14	2.47	집단간	2	.84	.42	.13	집단간	3	5.12	1.71	.54
	집단내	59	170.23	2.89		집단내	59	190.52	3.23		집단내	59	186.53	3.16	
	합계	62	191.65			합계	61	191.35			합계	62	191.65		
회피성-타인	집단간	3	1.23	.41	.14	집단간	2	9.54	4.77	1.66	집단간	3	4.68	1.56	.53
	집단내	59	178.48	3.03		집단내	59	169.90	2.88		집단내	59	175.03	2.97	
	합계	62	179.71			합계	61	179.44			합계	62	179.71		
회피성-자신	집단간	3	17.94	5.98	1.54	집단간	2	16.90	8.45	2.19	집단간	3	4.40	1.47	.36
	집단내	59	229.47	3.89		집단내	59	228.02	3.86		집단내	59	243.03	4.12	
	합계	62	247.43			합계	61	244.92			합계	62	247.43		

독립변인	아버지의 직업					어머니의 직업(취업모에 제한됨)					월수입				
	변량원	DF	SS	MS	F	변량원	DF	SS	MS	F	변량원	DF	SS	MS	F
애착-타인	집단간	3	7.14	2.38	.78	집단간	4	6.82	1.71	.66	집단간	3	11.13	3.71	1.24
	집단내	57	173.91	3.05		집단내	24	62.42	2.60		집단내	59	176.14	2.99	
	합계	60	181.05			합계	28	69.24			합계	62	187.27		
애착-자신	집단간	3	6.98	2.33	.55	집단간	4	34.03	8.51	3.14*	집단간	3	15.24	5.08	1.26
	집단내	57	242.03	4.25		집단내	24	64.94	2.71		집단내	59	238.47	4.04	
	합계	60	249.02			합계	28	98.97			합계	62	253.71		
자기신뢰-타인	집단간	3	7.55	2.52	.93	집단간	4	13.59	3.40	1.00	집단간	3	7.06	2.35	.83
	집단내	57	154.22	2.71		집단내	24	81.17	3.38		집단내	59	168.02	2.85	
	합계	60	161.77			합계	28	94.76			합계	62	175.08		
자기신뢰-자신	집단간	3	19.34	6.45	2.14	집단간	4	26.69	6.67	2.02	집단간	3	3.86	1.29	.40
	집단내	57	171.71	3.01		집단내	24	79.10	3.30		집단내	59	187.80	3.18	
	합계	60	191.05			합계	28	105.79			합계	62	191.65		
회피성-타인	집단간	3	20.36	6.79	2.47	집단간	4	9.44		1.52	집단간	3	7.10	2.37	.81
	집단내	57	156.69	2.75		집단내	24	37.25	2.361		집단내	59	172.61	2.93	
	합계	60	177.05			합계	28	46.69	55		합계	62	179.71		
회피성-자신	집단간	3	19.94	6.65	1.69	집단간	4	30.06		3.52*	집단간	3	7.27	2.42	.59
	집단내	57	224.62	3.94		집단내	24	51.25	7.52		집단내	59	240.16	4.07	
	합계	60	244.56			합계	28	81.31	2.14		합계	62	247.43		

*p<.05

〈표 2〉에서 나타난 것처럼 아동의 출생순위도 애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부모의 학력과 아버지의 직업, 월수입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단 어머니의 직업은 아동의 애착-자신과 회피성-자신의 점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Duncan 사후검증 결과 애착-자신 요인은 어머니가 전문직 또는 관리직에 종사할 경우(평균 11.33) 어머니가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평균 7.33)보다 점수가 높았다. 반대로 애착의 부정적인 측면을 말해주는

회피성-자신의 점수는 역시 자영업에 종사하는 어머니의 아동(평균 9.17)이 전문직 또는 관리직의 어머니의 아동(평균 6.00)이나 기능직(평균 6.67) 또는 사무직(평균 6.88)에 종사하는 어머니의 아동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정환경변인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애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유능성, 지도력, 불안정성, 과민성 등의 사회적 능력에 대하여 아동의 성별과 어머니의 취업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표 3〉참조).

〈표 3〉 아동의 성별과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점수(N=63)

독립변인 사회적 능력	아동의 성 별	평 균	표준편차	t	어머니의 취업유무	평 균	표준편차	t
유 능 성	남	17.2318	3.63	-1.83	유	17.76	3.73	- .61
	여	.88	3.53		무	18.32	3.61	
지 도 력	남	27.30	5.44	- .95	유	27.14	5.74	-1.10
	여	28.69	6.05		무	28.79	5.75	
불안정성	남	10.77	2.74	.18	유	10.62	2.32	- .27
	여	10.66	2.42		무	10.79	2.78	
과 민 성	남	13.29	2.76	1.18	유	12.45	3.04	-1.12
	여	12.47	2.78		무	13.24	2.52	

아동의 출생순위, 부모의 학력과 직업 역시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표 4〉참조). 가계의 월수입은 사회적 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월수입이 높은 집단의 아동이 월수입이 낮은 집단의 아동보다 사회적 유능성의 점수가 더 높았다. 이는 박용임(1988), Gottman, Gonso와 Rasmussen(197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2. 아동의 애착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이 유아기에 부모에 대해 형성하는 애착의 질과 사회적 능력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 변인들간의 Person's r을 구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의 애착점수는 사회적 유능성과 지도력과는 정적상관을, 불안정성과 과민성과는 부적상관을 보여 주었다. 특히 애착면접시 부모와의 격리 상황에 대해 사진 속의 유아를 대상으로 반응을 얻어낸 “애착-타인”점수는 지도력과 관련이 있었으며 면접대상인 유아 자신에게 적용된 경우의

“애착-자신”점수는 유능성과 관련이 있었다. 한편 애착-타인, 애착-자신의 두 점수 모두 사회적 능력의 부정적 측면을 보여주는 불안정성과 과민

성 변인들과는 비교적 높은 부적상관이 있었는데 특히, 애착-자신의 점수는 과민성과 매우 높은 정도의 부적관계가 있었다.

〈표 4〉 출생순위, 부모학력, 부모직업, 월수입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점수

독립변인 애착요소	출생순위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				
	변량원	DF	SS	MS	F	변량원	DF	SS	MS	F	변량원	DF	SS	MS	F
유 능 성	집단간	3	11.09	3.70	.27	집단간	2	56.19	28.10	2.17	집단간	3	3.21	1.07	.08
	집단내	59	812.65	13.77		집단내	59	763.74	12.94		집단내	59	820.53	13.91	
	합 계	62	823.75			합 계	61	819.94			합 계	62	823.75		
지 도 력	집단간	3	61.44	20.48	.61	집단간	2	128.66	64.33	2.02	집단간	3	130.44	43.48	1.33
	집단내	59	1961.54	33.82		집단내	59	1844.29	31.80		집단내	59	1892.54	32.63	
	합 계	62	2022.98			합 계	61	1972.95			합 계	62	2022.98		
불 안정 성	집단간	3	17.22	5.74	.87	집단간	2	8.11	4.05	.60	집단간	3	11.88	3.96	.59
	집단내	59	389.63	6.60		집단내	59	397.07	6.73		집단내	59	394.98	6.69	
	합 계	62	406.86			합 계	61	405.18			합 계	62	406.86		
과 민 성	집단간	3	30.00	10.00	1.31	집단간	2	1.79	.89	.12	집단간	3	37.74	12.58	1.68
	집단내	59	448.98	7.61		집단내	59	442.15	7.49		집단내	59	441.24	7.48	
	합 계	62	478.98			합 계	61	443.94			합 계	62	478.98		

독립변인 애착요소	아버지의 직업					어머니의 직업(취업모에 제한됨)					월수입				
	변량원	DF	SS	MS	F	변량원	DF	SS	MS	F	변량원	DF	SS	MS	F
유 능 성	집단간	3	6.17	2.06	.14	집단간	4	11.39	2.85	.18	집단간	3	103.04	34.35	2.81*
	집단내	57	812.81	14.26		집단내	24	377.92	15.75		집단내	59	720.71	12.22	
	합 계	60	818.98			합 계	28	389.31			합 계	62	823.75		
지 도 력	집단간	3	95.63	31.88	.98	집단간	4	127.53	31.88	.96	집단간	3	72.13	24.04	.71
	집단내	57	1829.35	32.67		집단내	24	795.92	33.16		집단내	59	1950.86	33.64	
	합 계	60	1924.98			합 계	28	923.45			합 계	62	2022.98		
불 안정 성	집단간	3	25.62	8.54	1.29	집단간	4	14.56	3.64	.64	집단간	3	21.50	7.17	1.10
	집단내	57	372.64	6.61		집단내	24	136.27	5.68		집단내	59	395.36	6.53	
	합 계	60	402.26			합 계	28	150.83			합 계	62	406.86		
과 민 성	집단간	3	3.38	1.13	.15	집단간	4	71.07	17.77	2.27	집단간	3	21.02	7.01	.90
	집단내	57	439.37	7.71		집단내	24	188.10	7.84		집단내	59	457.96	7.76	
	합 계	60	442.85			합 계	28	259.17			합 계	62	478.98		

*p<.05

〈표 5〉 아동의 애착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애착요인 사회적 능력	애착-타인	애착-자신	자기신뢰-타인	자기신뢰-자신	회피성-타인	회피성-자신
유 능 성	.19	.23*	.01	.19	-.23*	-.30**
지 도 력	.34**	.14	.01	.15	-.19	-.21*
불 안정성	-.33**	-.23*	-.02	-.10	.13	.14
과 민 성	-.31**	-.47***	-.09	-.07	.30**	.23*

*p<.05 **p<.01 ***p<.001

자기신뢰성 점수는 사회적 능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았으나 관계의 방향을 보면 자기신뢰성은 사회적 능력 중 유능성과 지도력과는 정적관계의 부호를, 불안정성과 과민성과는 부적관계의 부호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회피성의 경우 유능성 및 지도력과는 부적상관을, 과민성과는 정적상관을 보여 주었다. 즉 부모에 대해 회피적인 경향이 높을수록 애착반응을 타인에 대한 투사적 형태로 표현하든 아니면 아동자신의 경우로 가정하여 표현하든, 사회적 유능성과 지도력의 점수가 낮았고 과민성 점수는 높았다.

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5, 6세 아동이 부모에 대해 형성하고 있는 애착의 질과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가정환경변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아동의 애착의 질과 사회적 능력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앞에서 나타난 조사결과에 비추어 논 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애착과 사회적 능력은 아동의 성별, 출생순위, 어머니의 취업여부, 부모의 학력과 아버지의 직업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직업에 따라서는 아동의 애착과 회피성

에 있어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어머니가 전문직이나 관리직에 종사하는 경우 자영상공업에 종사하는 경우보다 아동의 애착 점수가 높았으며, 회피성 점수는 어머니가 자영상공업에 종사하는 경우의 아동이 다른 비교 집단의 아동보다 더 높았다. 자영상공업에 종사하는 어머니의 아동이 애착점수는 낮은 반면 회피성 점수는 높았다는 이 결과는 부모에 대해 애착을 안정되게 형성할수록 회피성이 낮다는 애착이론에 잘 부합한다. 또한 자영상공업에 종사하는 어머니의 아동이 보여준 낮은 애착과 높은 회피성은 자영상공업에 종사하는 어머니가 전문직이나 관리직, 사무직에 비해 영업에 종사하는 시간이 길어 아동과 상호작용할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취업모의 근무조건과 근무시간 등에 대한 세부적인 변인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가계의 월수입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 의미있는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수입이 높을 때 아동이 더 사회적으로 유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 사회적 기술, 사회적 상호작용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박용임, 1988; Gottman et al., 1975; Putallaz, 1983; Ramsey, 1988)과 일치한다.

둘째, 아동의 애착과 사회적 능력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애착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사회적으로 더 유능하고 지도력이 있는 반면 불안정하고 과민한 성향은 낮았다. 이와 반대로 애착의 불안정한 질적 측면을 나타내는 회피성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덜 유능하고 지도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민한 성향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과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아동의 대인관계 및 사회적 능력에서 반영된다는 선행연구들(김숙령, 1995; 노명희, 1995; Cohn, 1990; Kaplan & Cassidy, 1985)이 뒷받침하고 있다.

셋째, 위의 두 결론을 종합해 볼 때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가정환경의 구조적인 측면보다 아동이 부모와 갖는 상호작용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가정환경적 변인 중에 어머니의 직업과 가계 월수입이 아동의 애착과 사회적 능력의 일부 영역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나 그 외의 변인들은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었다. 한편 아동의 애착과 사회적 능력 변인들 간에는 매우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아동이 부모에 대해 형성하는 애착의 질은 아동이 어린시절부터 부모와 어떤 상호작용을 해 왔는지 그 경험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 애착이론의 관점에서 조명해 볼 때 본 연구의 결론은 가정의 구조적인 변인들보다 아동이 초기 어린시절부터 경험해 온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질을 반영하는 애착관계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더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암시해 준다.

본 연구의 의의는 5, 6세 때 측정된 부모에 대한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힌 데에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론이 애착이론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결론이라 할지라도 5, 6세 아동의 현재의 애착의 질과 이들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련성을 밝혔을 뿐 아동이 부모에 대해 영아기에 형성한 애착관계의 질이 어

떠한 영향력을 갖는지는 고려되지 못했다. 즉 영아기부터 유아기 이후까지 애착이 안정되게 지속되어 이것이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준 것인지의 여부를 확실히 규명할 수 없다. 영아기의 애착과 유아기 이후의 애착의 질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에 의해서만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대한 애착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보다 명확하고도 체계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숙령(1995). 유아의 애착상태와 유치원 생활에서 나타나는 사회정서적 문제 행동들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15(1), 21-38.
- 노명희(1995).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능력.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용임(1988). 사회계층에 따른 가정환경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송나리, 박성연(1993). 외동이의 사회적 능력 및 인지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4(1), 91-107.
- Ainsworth, M. D. S(1973). The development of infant-mother attachment. In B. M. Caldwell & H. N. Ricciutti(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3, pp. 1-94). Chicago:University of Chicago Press.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W.(1978). *Patterns of attachment: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N.J.: Erlbaum.
- Bowlby, J.(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Basic Books.
- Bowlby, J.(1972).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Anxiety and anger*. New York:Basic Books.
- Bowlby, J.(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2nd Edition)*. London: Hogarth Press.
- Bretherton, I.(1985). Attachment theory:Retrospect and prospect.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3-40.
- Cohn, D. A.(1990). Child-mother attachment of six-year-olds and Social competence at school. *Child Development*, 01, 152-162.
- Coie, J. D., Dodge, K. A., & Coppotelli, H. (1982) Dimensions of socaial status: A cross age perspe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7, 557-570.
- Erickson, M. F., Sroufe, L. A., & Egeland, B.(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attachment and behavior problems in a high-risk sample.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in a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ch in Child Development*, 50 (1-2, Serial No. 209).
- Gottman, J. M., J. Gonso, & Rasmussen (1975). Social interaction, Social competence and friendship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46, 709-718.
- Hansbung, H. G.(1972). *Adolescent Separation Anxiety:A method for the study of adolescent separation problem*. Springfield, IL:Thomas.
- Hartup, W.(1989). Social relationships and their developmental significance. *American Psychologist*, 44, 120-126.
- Jacobson, J. L., & Wille, D. E.(1986). The influence of atachment pattern on developmental change in peer interaction from the toddler to the preschool period. *Child Develoment*, 57, 338-347.
- Klagobrun, M., & Bowlby, J.(1976). Responses to separtation for parents: A clinical test for young children. *British Journal of Projective Psychology and Personality Study*, 21, 7-27.
- LaFreniere, P. J., & Sroufe, L. A.(1985). Profiles of peer competence in the preschool:Interrelations between measures, influence of social ecology, and relation to attachment history. *Developmental Psychology*, 21, 56-69.
- Main, M., Kaplan, N., & Cassidy, J.(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1-2, Serial No. 209). 66-104.
- Paker, J. G., & Asher, S. R.(1987). Peer

-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Paster, D. L.(1981). The quality of mother-infant attachment and its relationship to toddler's initial sociability with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17*, 326-335.
- Pease, D., Clark, S. G., & Crase, S. J. (1979). Iowa Social Competence Scales: School Age and *Preschool Manual*. Iowa State Research Foundation, Inc.
- Putallaz, M.(1983). Predicting Children's sociometric status from their behavior. *Child Development*, *54*, 1417-1426.
- Ramsey, P. G.(1988). Social skills and peer status: A comparison of two socioeconomic groups. *Merrill-Palmer Quarterly*, *34*, 185-202.
- Rubin, K. H., & Lollis, S. P.(1988). Beyond attachment. Some thoughts about socio-emotional continuities. In J. Belsky & T. Nezworski(Eds.), *Clinical implications of attachment*(pp. 219-252). Hillsdale, NJ: Erlbaum.
- Slough, N. M., & Greenberg, M. T.(1990). Five-year-olds' representations of separation from parents: Responses from the perspective of self and other. In I. Bretherton & M. W. Watson(Eds.), *Children's perspectives on the family,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48*, 67-84.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Sroufe, A. L.(1983). Individual patterns of adaptation from infancy to preschool. In M. Perlmutter(Ed.), *The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 (Vol. 16, pp. 41-81). Hillsdale, NJ: Erlbaum.
- Sullivan, H. S.(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 Watson, F., Wippman, J., & Sroufe, L.A. (1979). Attachment, positive affect, and competence in the peer group: Two studies in construct validation. *Child Development*, *50*, 821-829.